

궁금합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홍보부 -

질 병

Q 모든이 분만사에 들어와서 분만 3일 전에 항생제(테트룩시)를 맞고 분만이 종료된 후와 이유시에 항생제(페니실린)를 사용합니다. 또한 포유기간 동안에 간혹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농장에 비해서 얼마나 과다한 것인지 PED 설사나 다른 바이러스성 설사, 항체를 만드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황윤재 금오BPC 상무>

비교적 항생제 주사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분만사에서 분만을 전후하여 산욕열이나 MMA 등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또는 이유시 유방염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성 페니실린 등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만사에서 항생제를 모든에 얼마나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많이 사용한다 혹은 적게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농장 분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우리 농장의 분만사 환경이 매우 쾌적하며 올인 아웃되고 수세소독도 되며 초산모돈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어서 별다

른 질병 발생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위어서처럼 주사를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항생제를 남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제, 특히 항생제의 사용 여부는 수의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생제의 사용이 일단의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면역을 억제하느냐의 문제, 특히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형성에 방해가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현장에서는 그러한 바이러스와 항생제 간의 문제는 무시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사 료

Q 돼지사료를 물과 함께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이 많아진다거나 인줄은 점을 알고 싶습니다.

A <채병조 강원대 동물자원학부 교수>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 방법은 건식, 건습식, 습식 급이법이 있습니다. 건식은 물과 사료를 따로 주는 것이고, 건습식은 급이기내에 니뿔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건사료를 주므로서 사료와 물을 동시

에 먹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습식은 물과 사료를 배합하여 주는 방법입니다. 질문은 큰돼지의 습식 급이인데 습식 급이도 많이 합니다. 특히 자돈에서 하고 큰 돼지에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점은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특히 건식 급여시 물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이 경우 증체에 도움이 되고 저능력돈의 경우 지방이 늘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별도 시설이 필요하고 계획적인 사료급여관리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 양

Q 모돈한테 단콜백신을 투여하고 24시간후에 그곳에 다시 비타민제를 투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백신, 24시간 지나서 다른 한쪽에 비타민제를 투여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일 기간을 두고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방법이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컨설팅&클리닉 대표>

주사부위를 선정할 때 같은 쪽이라도 약간 간격을 두면 동시(병용)투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반대 편을 접종하거나 같은 편이라도 간격을 두면 접종할 부위가 넓으니 24시간 지나서 접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문 주위 접종법도 알아두면 스톨에 있는 임신돈이나 어린 자돈주사가 쉽고 스트레스 경감, 흡수율 등에도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다만 돈단독같은 생균백신 접종 시 항생제의 동시 투여는 금기사항입니다. 즉, 항생제 외 다른 영양제나 비타민제 등은 동시투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Q 요즘 들어 저희농장에 간간히 조산하는 모돈이 보입니다 유산한 것은 한 2마리 정도됩니다. 최근 임신돈을 좀 많이 들여왔는데 그 농장에서는 일괄적으로 PRRS백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농장에서는 PRRS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PRRS이 조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MMA를 보이는 모돈이 두 마리 정도 있는데 OTC제제 주사와 옥시토신을 같이 투여하거나 OTC제제+데코모톤을 투여했는데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김태주 한국애니멀컨설팅&클리닉 대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유산보다 조산이 많은 것으로 보아 임신말기 물리적인 요인이나 이동 스트레스 아니면 계절적인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청검사도 해보시고 광범위 항생제(암피실린제 등)로 가볍게 크리닝을 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MMA라 했는데 유방질환인지 자궁질환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방염이나 자궁질환일 경우엔 광범위 항생제와 소염제로 최소한 2일 정도 주사한 후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2회 정도 치료를 더하고 만일 2일간 치료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엔 오진이나 사용한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고 보고 약제를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유증인 경우엔 아직 좋은 치료책이 없습니다. 포유돈에 미네랄제제 등을 급여하고 임신기에 사료관리도 영향이 큼니다. 수유기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최유히르몬을 차단하게 되어 자동으로 건유나 무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돈**